

나 주 예수는 말한다.

여기 너희의 모든 마음들을 받으러 왔노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나는 너희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 가지고 있는 주 예수다. 나를 처음 만나는 자들이 있구나. 나는 주 예수라는 너희의 신랑이다. 사랑한다. 놀라지 마라. 난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사랑하여 옆에 있으며 네게 사랑주고 너를 지켜왔다.

너의 육만 내가 생소할 뿐 너희 영은 나를 알지? 사랑으로 너희를 만나고 있는 나를 이곳에까지 와서 만나니 너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여기가 어디인줄 아느냐? 천국이다. 지상의 천국이다. 너희가 여기에 오자 마음이 기뻐졌지? 웬지 모르게 가슴 설레지? 좋았지? 천국은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고 기쁜 곳이다. 여기도 저 입구에서부터 천사들이 기다려 들어오는 사람들 마다 그 가슴을 쳐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고민 걱정 사라지게 한다. 발을 딛는 순간부터 기쁘게 한다.

너희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보고 있노라. 오늘은 치어페스티발이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행사다. 815 다음으로 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행사다.

하늘에도 치어들과 같이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너희들이 응원하면 하나님은 번뜩번뜩 힘 있게 역사하고 세상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신다. 내조를 잘하려면 신랑의 마음을 알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신랑이라 여기고 그 원하는 영광으로, 응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신랑의 사랑이 쏟아지리라. 이곳 천국에서 너의 사랑 지켜보고 있으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응원하라. 응원의 역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좋고, 하나님이 좋으니 찬양과 몸으로 늘 나를 응원하라.

이 행사를 축복하노라. 이곳에 온 너희를 기억하겠다. 내가 축복하니 너희는 앞으로도 영원히 나만을 사랑하고 응원할지어다. 오늘의 모든 영광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 보좌가 내려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사랑한다. 나와 함께 뛰자. 기쁘게 행복하게. 이 행사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끝까지 영광 돌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보낸다.